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

박 재 영**

목차

- I. 들어가기
- 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
- III. 독일-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
- IV. 나가기

I. 들어가기

폴란드의 역사가 피스코르스키(Jan M. Piskorski)는 독일과 폴란드 국경의 역사적 변천을 6단계(960년부터 1370년까지 중세 피아스트 왕조시대를 2 시대로 구분, 17세기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시대, 18세기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시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폴란드 공화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그 정도로 양국 사이에 점령,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51).

이 논문은 2014년 11월 7일 역사와교육학회 및 역사교과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분할,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¹⁾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민족주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서로를 ‘적대적 타자’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독립을 쟁취하면서 양국 간의 국경분쟁은 첨예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패전국 독일이 폴란드에 오버솔레지엔 일부, 포젠, 서프로이센 지역을 폴란드에 할양해야 했던 사실과 단치히의 자유도시화, 동프로이센과의 육로가 차단되는 현실을 경험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정된 오데르-나이세 국경선(폴란드어: Granica na Odrze i Nysie Łużyckiej, 독일어: Oder-Neiße-Grenze)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공식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점은 또 다시 독일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폴란드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이 새로 확정되면서 전쟁 이전의 이 선 동쪽의 독일 영토(면적: 바이마르 공화국 영토의 23.8%)는 전쟁 이후 폴란드와 소련의 영토가 되었으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은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은 국경선을 둘러싸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게르만 문화와 슬라브 문화가 중첩된 게르마니아-슬라비카(Germania-Slavica) 지역에서는 양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통합되어 가는 유럽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²⁾ 이 지역은 민족주의 시대의 영토분쟁과 이와 관련된 역사분쟁이 평화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³⁾

1) Jan M. Piskorski, "Die deutsch-polnische Grenze und die historisch-geographische Nomenklatur von Grenzterritorien," Stöber & Maier(eds.), *Grenzen und Grenzräume in der deutschen und polnischen Geschichte*, Hannover, 2000.

2)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솔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30쪽.

3)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

본 논문은 거의 천년 동안 지속된 양국의 불편했던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적대감, 나치독일의 전쟁범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 통합 유럽의 일원으로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해 협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한 작업임을 밝힌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머리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세 이래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의 확정 과정을 테헤란 회담,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인 추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1972년 이후 추진되기 시작했던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과정과 독일-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독일-폴란드 양국 간 국경문제와 역사분쟁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역사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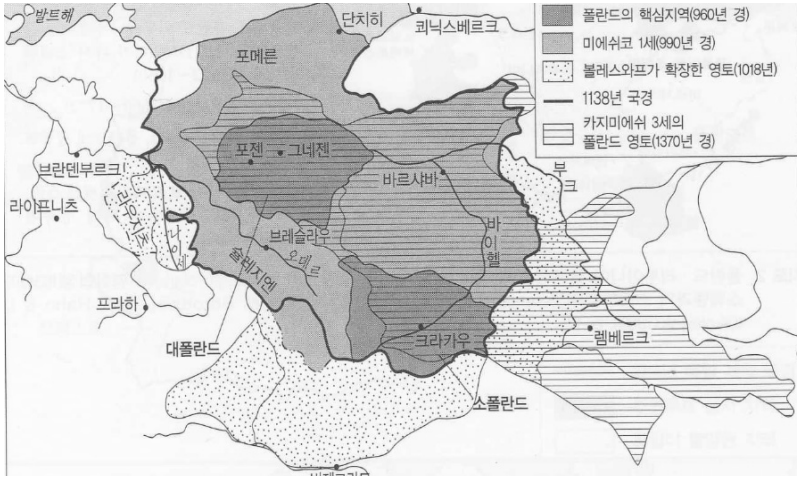
I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

오늘날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인 프로이센 지역에는 발트계 민족인 고(古) 프로이센족이 살고 있었고, 오데르 강 저지대는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었다. 11세기경 폴란드 왕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1세기 초 피아스트 왕조의 볼레스와프 1세는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1018년에는 피아스트 왕조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13세기에 이르러 피아스트 왕조는 폴란드 북부 이민족의 선

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교방, 2011, 313쪽.

교를 위해 독일기사단(Deutscher Orden)을 불러들였다.⁴⁾

〈지도 1〉 피아스트 왕조 시기 폴란드 영토⁵⁾



이렇게 시작된 독일-폴란드 관계사에 있어서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18세기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에 의한 세 차례의 폴란드 분할 이전까지 소급하기는 어렵다. 폴란드 왕국과 영토분쟁을 했던 독일기사단이나 프로이센이 폴란드 왕국에 비해 그리 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가 여러 영방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로이센과 폴란드에 민족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신분에 기초한 귀족의 집단의식에 불과했다. 독일인 상공인이나 농민들은 폴란드 왕국에서 폴란드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중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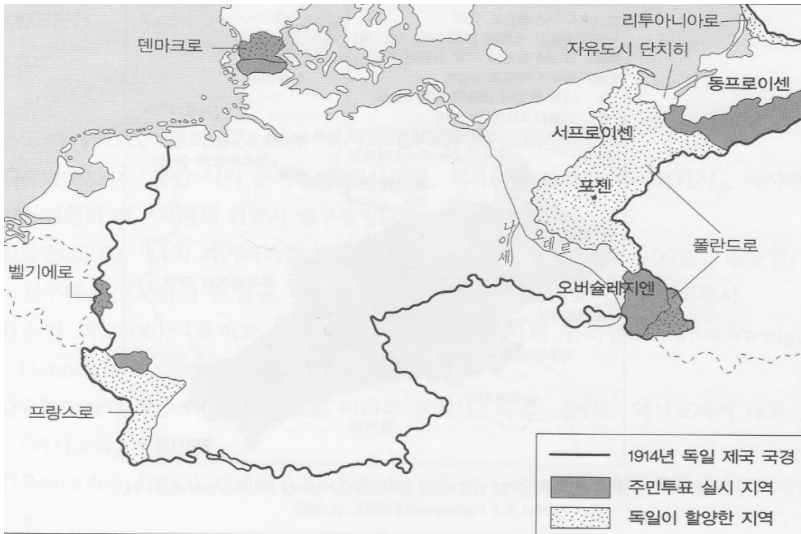
4) Walter Günzel, *polen*,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ehen GmbH, Hannover, 1963, 14-18쪽.
 5)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Polen und Deutschland, ein kurzer Leitfaden zur Geschichte ihrer Nachbarschaft*, Warszawa, 1999, 6쪽.

민족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폴란드 분할은 독일과 폴란드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폴란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폴란드 민족국가의 독립을 지상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프로이센은 이를 통하여 비로소 유럽의 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⁶⁾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가 폴란드 농민, 상인, 귀족들을 폴란드인이라는 이유로 탄압한 일은 폴란드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 데 자극을 주었고, 폴란드는 18세기에 폴란드 분할로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독립하였다. 폴란드의 독립은 중세 피아스트 왕조 이래 폴란드의 오랜 국가적 전통에 대한 승전국들의 합의 아래 성취될 수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영토 변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해체되었고, 제국 내 피지배민족들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창하며 독립해 나갔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동일한 언어와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첫 번째 적용대상이었고, 그 같은 판단이 쉽지 않은 민족의 혼주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국가 귀속문제 해결이 두 번째 적용방법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전 독일제국에 속해 있던 슐레스비히, 오버슐레지엔, 동프로이센 등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주민투표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지역도 있었지만 오버슐레지엔처럼 전쟁을 방불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도 있었다.<지도 2> 참조)

6) 김승렬, 앞의 논문, 34쪽.

<지도 2> 베르사이유 조약 이후 할양된 독일영토⁷⁾



신생국 폴란드와 독일의 서부 국경은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확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과거 폴란드의 역사적인 국경을 따른 것이지만, 일부 지역은 인종 경계를 따르도록 조정되었다. 포메른과 오버슬레지엔은 분리되었고, 독일 쪽 영토에는 폴란드계 및 슬라브계 소수 인구가, 폴란드 쪽 영토에는 독일계 소수 인구가 있었다. 또한 이 국경선으로 독일은 폴란드 회랑과 단치히 자유시를 사이에 놓고 둘로 분리되었다. 단치히 자유시에는 독일계 인구가 많았으나, 폴란드가 발트 해로 나가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되었다.<<지도 3> 참조)

7)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93쪽.

〈지도 3〉 폴란드영토 1918-1921(폴란드 제2공화국 건국상황)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설정된 독일과 폴란드 국경은 두고 두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협상국들에 의한 폴란드 회랑과 주민투표를 통한 오버슬레지엔의 분할로 폴란드에는 독일인dl, 독일에는 폴란드인이 남게 되었고, 오버슬레지엔을 둘러싼 분쟁은 독일 민족주의의 극단화를 초래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양국 국경 변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문제에 대한 연합국 측의 논의는 1943년 12월 테헤란 회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오데르 강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루즈벨트는 폴란드 서부 국경을 오

8)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op.cit.*, 32쪽.

데르 강으로 확장하고, 동부 국경을 서쪽으로 축소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문제는 국경과 관련된 임시 협정에만 합의할 수 있었고, 전후 폴란드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후 협상으로 유보되었다. 이 회담에서 폴란드 국경문제는 소련이 1919년의 경우와 비슷한 폴란드 국경을 수용한다는 데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후 영국 정부는 1944년 1월 유럽 자문 회의에서 동프로이센, 단치히 및 그 외의 지역을 폴란드에 영구 할양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폴란드의 새 국경선을 오데르 강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폴란드 문제는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고 독일과 폴란드 국경지역에 접근하고 있었던 1945년 2월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가 만난 얄타 회담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폴란드에 세워질 정부의 구성, 폴란드를 포함한 연합국이 점령한 국가에서의 자유선거, 영토를 포함한 독일로부터의 폴란드 배상문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국이 점령한 지역의 위치 조정 등이 논의되었다. 폴란드-소련 국경은 1919년 영국 외무장관 커전(Lord Curzon)이 했던 제안대로 조정되었다. 소련은 이로써 1939년 리벤트로프-몰로토프 협정 결과 이미 소련에 편입된 것과 같은 크기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동쪽 국경을 소련에 양도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동프로이센 일부, 단치히, 동부 포메른 및 고지 슐레지엔을 할양받는 데 동의하였다. 얄타 회담은 소련이 서방에서 제안한 독일-폴란드 국경을 지지하는 첫 사례로 여겨진다.⁹⁾ 하지만 나이세 강의 동안 및 서안을 따라 국경선을 설정할지는 미정하였고, 폴란드의 서부 국경의 정확한 위치는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독일이 항복한 지 두 달 이후인 1945년 7월, 연합국 측은 포츠담에서 다시 모였고 얄타 회담에서 합의한 전반적인 협정에 따라 폴란드 국경이

9) Debra J. Allen, *The Oder-Neisse line: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Germany in the Cold War*. Westport: Praeger, 2003, 17쪽.

다시 그어졌다.¹⁰⁾ 이 회담으로 독일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다. 동프로이센은 양분되어 쾨니히스베르크시를 포함한 북반부는 소련으로, 남반부는 폴란드로 귀속되고 또 폴란드는 단치히 자유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 동쪽의 모든 독일 영토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폴란드에 의해 관장되도록 하였고, 기존 폴란드 영토에 있는 독일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폴란드 국경 조정에 대한 포츠담 회담에서의 결의안 내용(1945년 8월 2일, 발췌)은 아래와 같다.

새 정부의 원수들은 폴란드 서부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슈비네 강 입구 바로 서부의 동해와 그로부터 오데르 강을 따라서 나이세 강 서부의 입구까지, 그리고 서부의 나이세를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선의 동부에 있는 동프로이센 지역, 이 지역은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일치하여 소련의 관할 하에 놓이지 않는다. (.....) 이전에 자유도시 단치히 지역을 포함한 이전의 독일의 지역들은 폴란드 국가의 관할 하에 두고, 이 점에서 독일에서 소련 점령지역의 일부로서 간주되지 않는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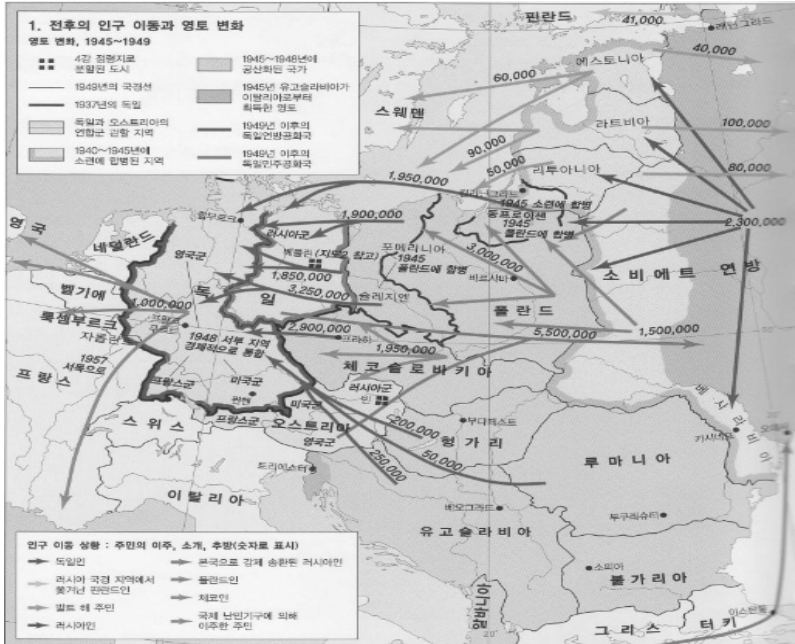
폴란드가 할양받은 독일의 동부 영토는 과거 피아스트 왕조의 영토였고, 폴란드 분할 당시 프로이센 왕국으로 넘어간 영토를 포함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재수복’ 및 ‘회복된 영토’로 불렸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폴란드는 과거 독일 영토 112,000 km²를 할양받았고, 폴란드 동쪽 지역

10) 1945년 7월 17일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포츠담에서 논의한 중요한 결정들은 독일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나치체제의 폐지, 군사력 해체, 무기생산 금지, 산업통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회복, 독일 영토의 축소, 배상문제, 4개국 분할점령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이 논의되었고, 패전국에 대한 처리방안과 전후 문제가 다루어졌다.

11)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taa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340-347쪽.

187,000 km²를 소련에 할양하였다. 새롭게 확정된 독일과 폴란드 국경선의 총 길이는 472km이었으며, 체코의 최북단에서 시작하여 오데르 강 하구의 발트해 최남단으로 연결된다(<지도 4> 참조).

(지도 4) 독일-폴란드 국경 지도¹²⁾



영토 변화에 따라서 전쟁 중에 이동한 사람을 포함한 1,400만여 명이 이동하였다. 폴란드에 합병된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추방당했으며, 독일에 강제 징용된 폴란드인들은 본국으로 귀국하였

12) Geoffrey Parker ed, *The times compact history of the world*, 2001, 김성환 역, 『이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10, 154쪽.

다. 과거 제2폴란드 공화국의 동부는 소련에 합병되었으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새 영토로 이동하였다. 1945년 8월 2일자 포츠담 회담 결의안 제13항에서는 새로운 국경의 확정으로 야기된 독일 국경 밖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 추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찾아볼 수 있다.

회담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로부터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협정에 도달했다. (.....) 독일계 주민 혹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남아 있는 그 구성요소들을 독일로 이송하는 일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그러한 실행이 (.....) 규정에 맞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¹³⁾

이러한 결정은 오데르-나이세 국경 이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 기타 독일의 인접국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다. 독일인에 대한 추방은 이미 1945년 1월 소련군의 브레슬라우 점령에 관한 파울 파이케르트(Paul Peikert) 목사의 연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이 진주하면서 오데르 강 동부의 슐레지엔 전체 주민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이제 브레슬라우에는 밤낮으로 종일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보였다. (.....) 어린이들은 동사하고, 가족들은 이들을 도로변에 갖다 놓는다. 그렇게 동사한 아이들을 실은 화물차 전체가 이곳의 시신 보관실로 이송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이 물려드는 난민들이 어디에 수용되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한 보도에 따르면 모두는 그들의 집, 소유, 경작지로부터 폭력적으로 추방당하였다. 전날에 모든 보유 가축 및 돼지가 도살되었다. (.....) 혹독한 겨울에 대부분 얼어 죽게 될 것이

13)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taa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340-347쪽.

다. 슐레지엔은 30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곤경을 경험했다(출처: Paul Peikert, Festung Breslau in den Berichten eines Pfarrers(22. Januar bis 6. Mai 1945).¹⁴⁾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세계에 대규모의 난민과 인구이동을 야기했다. 약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은 극히 적은 소지품만 가지고 낮은 곳을 헤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집과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가 해방된 제3제국의 약 8백만 명과 수용소의 수백만 명은 전후에 사실상 주택과 직업이 없는 난민 신세가 되었다. 유럽 각국은 외국인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냈다. 루마니아는 헝가리인을 몰아내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헝가리인과 독일인을 추방하였다. 독일이 폴란드의 독일화를 위해 이동시켰던 독일인은 폴란드를 다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나치가 강제 퇴거시킨 1,500만 명의 폴란드인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독일의 패전으로 수백만 명의 전쟁포로와 강제노동자들이 풀려났고, 약 50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 전쟁포로와 전쟁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38년 이후 나치 독일이 합병한 지역에서 약 1,200만 명이 전쟁 전에 살던 고향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고, 소련의 서진으로 2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새롭게 합병된 소련 영토로 이주했다.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의 붕괴에 따른 행정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합의한 4D원칙(무장해제; to disarm, 비군사화; to demilitarize, 나치의 해체; to denazify, 민주화; to democratize)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이 수립되었다.¹⁵⁾ 그러나 전범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독일 재

14) 한국교육개발원, 『20세기의 독일과 폴란드 분석, 사료, 교수법 시사(독일 교과서 협의 사례 연구, 부록 6(연구자료 RM2002-61))』, 한국교육개발원, 2002, 213쪽.

15) 1945년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4개 점령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소련이 전

건에 착수한 연합국은 과거 나치 때 추방된 독일인의 귀국 절차에 대해서부터 점차 의견대립을 노출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방측 점령국은 독일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을 우방으로 만들려 하였으며, 소련은 노골적으로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한 갈등은 1948, 1949년의 베를린 봉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1952년 스탈린은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통일 독일의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200만 명의 실항민이 정착한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할슈타인 독트린에 의해 서독은 동독 및 폴란드 인민 공화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모스크바 조약,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였고 오데르-나이세 선을 현재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부 독일 실항민들의 고향 방문에 영향을 주었다. 고향 방문은 여전히 힘들었으나, 폴란드령이 된 옛 고향에 재정착은 불가능한 채로 남았다. 1990년 11월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연방 공화국과 폴란드 공화국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전에 독일은 헌법을 개정하였고, 과거 동부 독일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독 기본법 23조를 폐지하였다. 1990년 독일-폴란드 국경 조약으로 오데르-나이세 선은 폴란드-독일 국경으로 확정되었으며, 1991년 6월 체결된 우호조약과 함께 1992년 1월 16일 발효되었다. 우호조약에서는 국경 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 및 폴란드계 소수의 문화적 및 정치적 권한 등을 보장하였다. 1990년 이후 폴란드에 할양된 영토에는 약 15만 명의 독일인들이 살고 있으며, 독일에는 150만 명의 폴란드인 및 폴란드계가 살

쟁 전 수준의 1/3로 추락한 경제를 부흥하려던 1946년의 5개년 계획은 공공연히 동부 독일과 점령지역의 수탈에 의존한 것이었다. 소련 점령지역 내의 수도 베를린 역시 연합국 4개국의 공동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고 있다.

Ⅲ. 독일-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내용

본 장에서는 1972년 독일과 폴란드의 교과서협의 과정과 1976년 합의되고 1977년 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연구소에서 간행된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의 양국 국경관련 권고내용, 그리고 <권고안> 이후 독일 역사교과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인 추방에 대한 서술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로 폴란드가 독일과의 교과서 협의에 나선 것은 독일정부가 폴란드와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한 이후 부터였다.¹⁶⁾ 독일과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27년이 지난 후인 1972년 2월 22일 독일의 중등학교 교사 마이어의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독일-폴란드 역사서술에 대한 47개 테제』라는 논문을 기초자료로 하여 교과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합의는 ‘양국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두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아래 진행되었다. 덧붙여, 우선 가능한 사안들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최소해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¹⁷⁾

1972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 유네스코협회의 초청으로 독

16)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88, 52쪽.

17) E. Meyer, “Deutsch-polnische Schulbuchgesprache,”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vol. 24, Braunschweig, 1973.

일(11명)과 폴란드(29명)의 역사가, 지리학자, 교육학자, 교과서 전문가,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바르샤바에 모여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들과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양국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와 수업의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색하였다. 양국의 유네스코 협의회는 유네스코의 정신 속에서, 평화보장과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협의회들의 바르샤바 조약에 표현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의지가 교과서 개선의 영역에서 학문적 및 교육학적 협력에 유리한 분위기를 창출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결과, 1977년 초 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 연구소에서 양국어로 된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 초판이 발간되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권고안을 잘 따랐던 교과서도 있는 반면 분명 그렇지 못한 교과서도 있었다.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인 1976년 제9차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회는 앞으로 해마다 각 국을 번갈아가며 학술회의를 지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권고안 이후 열띤 논쟁을 해왔던 양국 교과서 협의회에 대한 독일에서의 관심은 서서히 시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의 무관심 속에서도 학술회의는 국경을 넘나들며 꾸준히 이루어졌다. 권고안 이후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회의 학술연구에 대한 실적이 10권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1988년에 열린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교육적 성과를 결산하였다.¹⁹⁾ 그들은 더 이상 독일과 폴란드 양국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를 못 느꼈다. 양국 관계사를 유럽사의 맥락 속에 자리매

18) Gemeinsame Deutsch-Polnische Schulbuchkommission, *Empfehlungen für Schulbücher der Geschichte und Geograph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Volksrepublik Polen*,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Braunschweig, 1977.

19) KEDI(ed.), *German-Polish textbook conferences and academic performance 1972-1987 in history Section(RM 2002-62)*. Seoul: KEDI, 2002.

김하는 일과 권고안이나 그 이후에 학술회의에서 얻은 연구실적을 교수법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적인 과제로 삼기에 이르렀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12월 29일 의회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공산당 정권이 종식되어 민주적인 공화국이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폴란드의 역사가들에게도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금기시 되어오던 폴란드에 사는 독일인 소수민족에 대한 민감한 테마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른 것인데, 이와 함께 폴란드도 자기반성적인 역사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교과서 시장이 다원화되어 역사서술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²⁰⁾

그렇다면 <권고안> 이후 독일 역사교과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볼프강 야콥마이어는 1976년부터 1988년 사이 독일의 역사교과서들에서 폴란드 역사와 독일-폴란드 관계사의 서술 변화를 분석하였는데,²¹⁾ 그의 연구는 독일 역사교과서에 실제로 권고안에 따른 개선이 상당히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권고안>에 따른 교과서 서술의 개선 유무는 시대별로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중세 초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주 텍스트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르네상스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대사 부분에서는 빈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권고안> 역사 관련 항목 16개 중에서 14개 항목이 현대사에 몰려 있을 정도로 독일과 폴란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필자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출판된 독일역사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20) 박재영,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2014, 110-111쪽.

21) 볼프강 야콥마이어, 『독일 및 폴란드 권고안 발표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교과서 변화』,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91-165쪽.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인의 <추방(Vertreibung)>과 관련된 서술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각 교과서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²²⁾

독일의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승국들이 1937년 당시에 만들었던 점령 지역 분할을 도입하기로 했다. 게다가 폴란드는 동쪽 지역을 소련에 넘겼고 그 지역은 곧 발트 국가들로 자리를 잡았다. 그 대신 독일의 동쪽지역 오데르 및 나이세 강 주변은 폴란드에 넘겨졌다. 그곳에 살던 독일인들은 (동유럽에 살고 있던 다른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로 “이주”되었다. 이 이주로 독일인들이 사실상 큰 손실을 입고 강제적으로 쫓겨났다.²³⁾

비록 영국이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자신이 원했던 영토의 재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소련이 1939년 점령했던 폴란드 (동부)지역을 소련의 관할 하에 두는 대신에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독일의 항복 이후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은 폴란드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련의 관할 하에 들어간) 폴란드 동부에서 강제 이

22)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 Braunschweig, 1997;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Hilke Günther-Arn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 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2002.

23)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157쪽.

주된 폴란드인들로 채워졌다.²⁴⁾

(.....) 다른 한편, 소련은 폴란드 영토의 서쪽으로의 이동 및 정착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독일계 주민의 추방을 기정사실화 했다.²⁵⁾

괴니히스베르크와 동프로이센의 북부지역에 대한 소련 영토로의 합병은 영국과 미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미·영 양국은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의 독일 영토는 폴란드의 행정 관할 하에 두기로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서부국경은 미래에 있을 평화회의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소련과 폴란드가 점령하고 있는 독일 지역에서 독일인 및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독일인들에 대한 강제이주를 포츠담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다.²⁶⁾

종전 직전인 1945년 2월 초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은 알타회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동의했다. 1. 이후 사실상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던 구분된 점령지에 있어서 독일의 분할점령은 당시에는 의도된 것은 아니었음. 2.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폴란드 동부지역에 대한 독일의 보상으로서의 폴란드인들이 서부 이동.²⁷⁾

위 5종의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다음과

24)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Braunschweig, 1997), 133쪽.

25)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147쪽.

26)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363쪽.

27) Hilke Günther-Arn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207쪽.

같다.

첫째,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영·소 연합국 세 나라에 의해 독일 영토의 폴란드 할양이 결정되었으며,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 지역을 할양하는 대가로 폴란드에 오데르-나이세 강 이동지역의 독일영토를 폴란드의 관할 하에 두게 되었다는 서술이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은 단순히 논리의 싸움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나치청산과 과거극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며 패전 이후 국경의 변경과 독일의 분단은 연합국의 결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²⁸⁾ 독일 역사교과서는 연합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영토의 상실에는 별다른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독일 역사교과서는 오데르-나이세 강 이동지역 영토상실보다 독일인들의 강제이주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포메른, 슬레지엔, 동프로이센,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28) 오데르-나이세 국경의 확정과 독일인의 추방에 대해서 1966년 출간된 폴란드 역사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포츠담 회담에서의 결정 사항 중 폴란드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서유럽의 세 강대국들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 회담 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세 강국은 폴란드가 오드라 동쪽과 니사 우취츠키카 동쪽 지방의 피아스트 왕조부터 내려오던 영토와 발틱 연안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 프러시아 지방의 대부분이, 특히 (p. 266) 쿨히히스베르크 남쪽 지방이 폴란드에 새로 속하게 되었다. 세 열강의 대표자들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 안에 거주하던 독일인의 이주를 결정했으며, 이는 곧 서유럽 열강들이 폴란드에 오드라-니사 지역까지의 서쪽 지방의 영토권을 인정한 것과 같았다. 회담에서 폴란드의 서쪽 국경선에 대한 마지막 인정은 후의 평화 협정의 한 부분으로 발표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폴란드 땅에서 독일인의 이주에 대한 결정은 바로 폴란드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땅에 대한 권리를 재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역사의 공정함은 이런 식으로 행사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4: 1966년도 폴란드 역사교과서 발췌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9)』, 한국교육개발원, 42쪽.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은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독일의 인구이동 정책에 따라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 땅과 집, 재산을 잃고 강제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다.

추방 과정에서 독일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추위와 굶주림, 추방당국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폭행과 테러, 무자비한 강제퇴거 조치 등은 추방된 독일인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1945년 7월 14일 폴란드 바트 잘쯔브룬(Bad Salzbrunn)시의 독일계 주민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특별명령은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사료라 하겠다.

잔트베르크 구를 포함한 바트 잘쯔브룬 시의 주민들에 대한 특별명령 폴란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1945년 7월 14일 6시에서 9시까지 독일계 주민의 강제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2. 독일계 주민은 나이세 강 서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다.
3. 모든 독일인은 최고 20kg까지 여행용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4. 어떠한 운송수단(마차, 황소, 말 따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생략)
6. 마지막 강제이주 시한은 7월 14일 10시에 종료된다.
7.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며, 거기에는 무기사용도 포함된다.
(생략)
11. 도시에 있는 모든 집은 열려 있어야 하고, 집 열쇠는 밖에 꽂혀 있어야 한다.

바트 잘쯔브룬, 1945년 7월 14일, 6시

지역사령관

육군 중령 진코브스키²⁹⁾

위에서 살펴 본 5종의 독일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만을 가지고 오테르-나이세 국경과 독일인 추방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간 교과서 협의는 1976년 권고안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에 힘입어 2008년 1월 독일과 폴란드의 외무장관들은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008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독일-폴란드 프로젝트 그룹은 양국의 학자와 정치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뿐, 동일한 형태로 독일과 폴란드의 중등 역사교육에 쓰일 수 있는 공동 역사교과서를 출간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가적인 교재가 아니라 양국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역사교육에 사용될 국가적으로 승인받은 교과서라는 점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독일-폴란드 관계에 있어서 높은 교육적·과학적·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양측은 학교의 역사교육에 이웃 나라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합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심화할 것을 표명했다. 2010년 12월 1일, 바르샤바에서 공동 교과서위원회는 역사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독일-폴란드의 관점에서 유럽과 세계에 대한 접근, 고대에서 21세기에 이르는 시기로 나누어진 다섯 개의 섹션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 이 권고사항은 상호 협력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향후 작업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2012년 봄, <독일-폴란드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인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이 시작되었다. 폴란드 측에서는 WSiP 출판사가, 독일 측에서는 universe Communication과 미디어 AG 출판사가 프로젝트의 협력 출판사로 나섰다. 교과서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은 2015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³⁰⁾

29) Friedrich Arnold(Hrsg), *Anschlag, Politische Plakate in Deutschland 1900-1970*, Frankfurt u.a. 1972, 130쪽.

30) <http://deutsch-polnische.schulbuchkommission.de/home.html>(2014.08.02.)

IV. 나가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의 차이는 정치적 노력과 학문적 협의, 그리고 상호이해에 바탕한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역사교육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이후 새로운 세대에게 민족주의적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역사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공존이라는 역사해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문제와 역사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동방정책을 통한 동구권 국가들, 특히, 참여한 국경문제로 대립했던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독일-폴란드 양국 역사가들의 학문적 접근을 위한 역사분쟁의 해결, E. Meyer, G. Eckert, K. Zernack, W. Markiewicz, W. Borodziej 등 양국 역사교육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부단한 인내가 필요했던 교과서 협의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유럽통합이라는 유럽인들의 이상이 작용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대립했던 영토와 주민에 대한 주권을 공유하는 지점을 넓혀가도 있다.³¹⁾ 이는 새로운 영토분쟁을 촉발하는 외교적 대립이 아니라 영토주권을 인정하면서, 접경지역이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과거 국민들을 구분하고 분열시켰던 ‘피 흘리는 국경선(Blutende Grenze)’에서 국민들을 연결하는 ‘상호 소통의 장’, 즉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아울러 독일-폴란드의 교과서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31) 김승렬, 앞의 논문, 9-20쪽.

점은 바로 양국 간의 정치적 현안문제 해결(국경문제)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된 교과서 협의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972년 처음으로 교과서 협의회가 몇 가지 테제가 합의한 데 이어 1976년에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때까지 양국의 역사인식에는 파행의 길을 걸을 정도로 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장시간에 걸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나가 결국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해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학술회의가 열리면서 진지한 학문연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이를 통하여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권고안 완성, 권고안을 보충하기 위한 학술연구, 공동의 교과 안내서 제작, 공동 역사교과서 출판이라는 교과서 협력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독일, 폴란드, 오데르-나이제, 국경, 게르마니아-슬라비카, 역사교과서

(논문투고 : 2014.12.9 / 논문심사완료 : 2014.12.23 / 논문게재 확정일 : 2014.12.24)

참고문헌

1. 독일 역사교과서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 Braunschweig, 1997.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Hilke Günther-Arm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2002.

2. 국내 문헌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김승렬,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사: 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 『역사대화의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동아시아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III)』,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슐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재한,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3권. 2012.
-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88.
- 라이너 리벤슈나이더, 『1935-96년 간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 협의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98.
- 로베르트 마이어, 『독일-폴란드 간 역사교과서 협의 난제 해결에 관해』, 『역사대화의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동아시아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III)』,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 박재영, 『유럽의 교과서협약의와 국제교과서연구소의 활동』,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자료원, 2008.
- 박재영,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2014.
- 볼프강 야콥마이어, 『독일 및 폴란드 권고안 발표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교재 변화』,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98.
- 지오프리 파커 저/ 김성환 역, 『아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10.
-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교방, 2011.
- 클라우디아 슈나이더, 『유럽의 경험 및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선인, 2008.
- 페터 가이스,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휴머니스트, 2008.
- 한국교육개발원, 20세기의 독일과 폴란드 분석, 사료, 교수법 시사 (RM2002-61),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66년도 폴란드 역사교과서(RM2002-59),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역사분야 독일-폴란드 교과서회의의 학문적 성과 1972-1987(RM2002-6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역사분야 독일-폴란드 교과서회의의 교육학적 성과 1972-1987(RM2002-63),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운석,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 신서원, 2009.
- 홍승진,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자료원, 2008.

3. 외국어 문헌

- Debra J. Allen, *The Oder-Neisse line: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Germany in the Cold War*. Westport: Praeger, 2003.
- Enno Meyer, “Deutsch-polnische Schulbuchgespräche,”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vol. 24, Braunschweig, 1973.
- Enno Meyer, *Deutschland und Polen(1914-1970)*, Ernst Klett, Stuttgart, 1981.
- Hansjacob Stehle, *Deutschlands Osten - Polens Westen?*, Ficher

- Bücherei KG, Grankfurt am Main, 1965.
- Jan M. Piskorski, "Die deutsch-polnische Grenze und die historisch-geographische Nomenklatur von Grenzterritorien," Stöber & Maier(eds.), *Grenzen und Grenzräume in der deutschen und polnischen Geschichte*, Hannover, 2000.
- KEDI(ed.), *German-Polish textbook conferences and academic performance 1972-1987 in history Section(RM 2002-62)*. Seoul: KEDI, 2002.
-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ta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 Manfred Overesch, *Deutschland 1945-1949: Vorgeschichte und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Ein Leitfaden in Darstellung und Dokumenten*, Athenäum/Droste Taschenbücher Geschichtw, 1979.
- Gemeinsame Deutsch-Polnische Schulbuchkommission, *Empfehlungen für Schulbücher der Geschichte und Geograph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Volksrepublik Polen*,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Braunschweig, 1977.
- Walter Günzel, *polen*,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ehen GMBH, Hannover, 1963.
-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Polen und Deutschland, ein kurzer Leitfaden zur Geschichte ihrer Nachbarschaft*, Warszawa, 1999.

Oder-Neisse border issues with German history textbooks

Park, Jae-young

This paper is work how Germany and Poland have solved the question of cooper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between two countries as part of today's European integration, in spite of almost one thousand years lasting historical inconvenient experience, national antagonism and crimes of Nazi Germany in the Second World War.

The difference of the territorial problems and historical awareness between German and Poland was able to overcome through the narrative of history textbooks and history education that was based on political efforts and academic discussions for mutual understanding. These acts have been provided a momentum for a new historical understanding, namely the new vision of history by communication and co-interpretation in spite of conflict and dispute, in both countries.

Today, the two countries do not pose any more problems around the border. Rather, in regions of Germania-Slavica that germanic and slavic culture is fused,

their own local culture are developing by both cultures. In addition, the integration of germanic and slavic culture is going to become a part of European culture. The area is considered as a prime example that

was resolved territorial and historical disputes relating to this era of nationalism through a peaceful and scholarly dialogue.

Key Words : Germany, Poland, borderline, Germania-Slavica, History Textbooks

